

2020 주일메세지

패배할 수 있으나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1. 사실 그리고 진리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이다. 진리의 가장 큰 유익은 '자유함'이다. 묶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상태이다. 구원은 다른 차원의 존재(영적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다. 즉, 세상(애굽)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광야 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말씀-진리'를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 나와 교회에 어떤 영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상 속에서 왜 진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생각할 때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진리는 검증된 사실(팩트)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1) 사실(fact)과 감정

'실제로 있는 일. 그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며, 대체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팩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실제로 있는 일이다. 실제로 있는 일인 팩트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를들어 '패배'는 사실이다. 패배는 싸워서 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패배감'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로 인한 '패배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죄책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과 그로 인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반대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패배의 반대인 '승리'도 같은 원리이다. 승리는 이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승리에 너무 취하여 교만해진 '우월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남을 돕는 구제의 일을 한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에 스스로 취해 '자기 의'라는 감정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2)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신앙

결국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죄성의 잘못된 '감정'과 섞여질 때, 신앙은 혼의 영역에 갇혀버리게 된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그때부터는 '현실'을 다룰 수 없게 된다.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죄책감은 '아담의 모든 것을 묶어 버렸다' 두려움을 주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했다.

잘못된 죄성의 감정은 '현실'을 비틀어 버린다. 해결되지 않는 죄성의 감정이 지속되면 '생각의 틀'이 된다. 그때 생겨난 '부정적 생각의 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틀'이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가 된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죄성의 감정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온 영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다.

[요한복음 8:44-45]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현실을 왜곡하는 죄성의 감정은 결국 '거짓말'이다. 사탄의 속성이다. 결국 우리를 거짓말 (패배감, 수치심, 정죄감, 우월감)로 속여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45절을 보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 즉 거짓의 아버지 마귀의 뿌리 때문이다.



2. 진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록된 말씀이다.

(1) 진리를 선포하라

현실의 문제를 내 감정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마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 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나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다. (이 경험은 해 본 사람이 안다)

(2) 성품적 믿음과 은사적 믿음 (데릭 프린스)

ㄱ) **성품적 믿음 (성령의 내적 열매 - 갈라디아서 5장)** : 나무와 같다. 경작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다.

ㄴ) **은사적 믿음 (성령의 외적 은사)**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경작하는 성품적 믿음과 다르다. 왜 이것이 '위기의 때' 중요한가? 결국 돌파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는 성품적 믿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3)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요한계시록 15:2-3] 2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모세의 노래이다. 결국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노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셨다. 모든 유희과 환난을 이겼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자.

[출애굽기 15:1-18]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2 여호와는 나의 힘ियो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이다. 그때 우리는 진짜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하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